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113

JCCT 2023-7-13

착용 의무 해제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 -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한 불확실성하의 선택

Why Are People Wearing Masks When They Are Relieved of Their Obligation? -Choosing Under Uncertainty by News Big Data Analysis

서기량*, 이상기**

Ki-Ryang Seo*, SangKhee Lee**

요약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던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왜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유를 큰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행동과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사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토픽 모델링 및 의미연결망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이면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의무착용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자주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주요어 : 마스크, 의무착용, 토픽 모델링, 의미연결망, 불확실성, 신뢰

Abstract Despite the lifting of the mandatory wearing of masks, which was the main tool of the COVID-19 quarantine policy, we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some people are still wearing masks, and we wanted to clarify why people do not take off their masks. Through a survey in this regard, we were able to ascertain why some people continue to wear masks in a broader context. In this article, we directly and indirectly confirm the hidden side of citizens' continued wearing of masks by analyzing how the lifting of the mask-wearing obligation was reported in media articl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behavior and attitud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citizens continue to wear masks to protect themselves in an uncertain situation where the COVID-19 endemic has not been declared, despite the quarantine authorities' announcement of lifting the mandatory wearing. In a situation where crises such as COVID-19 are expected to repeat frequently in the future, it was concluded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trust in the quarantine authorities.

Key words : Mask, Mandatory Wear, Topic Model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Uncertainty, Trust

*정회원, 부경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정회원,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2일

Received: May 31, 2023 / Revised: June 26, 2023

Accepted: July 2, 2023

**Corresponding Author: lsngk@pknu.ac.kr

Dept. of Communication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I. 서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했다.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기록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2022년 5월 실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어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됐다. 일상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로 남아있다. 즉,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 등이 그 대상이다.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일상회복을 뜻한다. 둘째, ‘마스크 착용’이 특정 장소에 국한된 의무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1]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72%에 달했다. 병원과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83%에 달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일상회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과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행태의 간극이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제 설정’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 보도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뉴스 기사 빅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R 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재희와 조연호[2]는 메르스 사태를 주제로, 토픽 모델링과 감성 분석 기법으로 온라인 매체에 드러난 이슈 동향을 분석하였고, 김태중[3]은 코로나19에 관한 언론보도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으로 단계별 주요 기사 토픽과 내용들을 분석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실태 자체를 분석한 연구로는 Q방법론을 사용해 한국인의 마스크 인식 유형을 연구하거나[4], 마스크 착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5],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6] 등을

밝힌 연구가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제로 대중들의 인식과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뉴스에서 어떤 단어가 주로 다루어졌는가? 둘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뉴스의 주요 토픽은 무엇인가? 셋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뉴스의 주요 토픽들 간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마스크 착용의무 해지에 관한 이슈와 주요 키워드를 뉴스를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방역조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문제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 연구 분석

1. 선행연구

한은진 등의 연구[7]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에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권고라는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질병 예방 동기에 따라서 그 정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길곤 등[8]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이슈 변화를 분석하고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검토를 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나 국가 중심으로 이슈를 생산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공적 방역은 중앙정부 주도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나아가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 기업, 시민과 전문가의 협력 결과로 이해해야 함을 실증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강소현 등[9]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생활장소의 마스크 착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방역정책이 강화되면서 점차 마스크 착용률이 높아지고 착용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령 등[10]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기간 마스크에 대해 보도된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분석했다. ‘마스크’ 키워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제를 살펴보면, 정책 관련 내용에서 사건이나 사고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초기에는 마스크 생산과 공급이, 중기에는 착용이 의무

화되었다는 내용과 마스크 관련 사건·사고, 후기에는 주로 사건·사고 위주로 토픽이 다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와 실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 3월 11일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며 감염병 최고 등급 단계를 공표했다.[11] 국내에서도 2020년 10월부터 개인적 차원의 방역과 사회적 차원의 방역이 시행됐다. 사회적 차원의 방역은 물리적인 장소 이동을 제한하고 접촉 인원수를 규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한다. 반면, 개인 위생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인적 차원의 방역이다. COVID-19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력이 강해, 전체 인구의 50%가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유병률이 50% 감소하고, 전체 인구의 80% 이상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든다.[12]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실내·외 구분없이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 명령을 고시했다. 마스크 착용이 이른바 뉴노멀(새로운 일상)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2022년 5월 코로나19의 변이 형태인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면서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했다. 이와 동시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되었고, 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13] 첫째, 완화 전략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해야 한다. 둘째, 치명률이 관리 가능한 범위로 낮아져야 한다. 셋째, 의료 대응 능력에 있어서 반복된 유행의 정점에서도 일상적 의료 체계와 중증 환자의 진료 체계가 감당 가능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19는 아직 종식(endemic) 상태가 아니다. 다양한 변이의 출현, 재감염, 2가 백신 접종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 단기 유행 예측도 어렵다. 향후 2~3년간은 3~5개월 주기로 유행이 반복될 수도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리서치[1]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가 변화해도 ‘앞

으로도 실외(59%)와 실내(72%)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위험 인식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편차가 크다는 P. Slovic의 연구[14]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이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마스크’ 관련 언론사 뉴스인 셈이다. 해당 뉴스 기사들을 통해 단어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등을 분석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과 관련한 주요 단어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로, 이 기간에 실외 마스크와 실내 마스크의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었다.

2. 분석 방법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보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픈 소프트웨어인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 진행을 위해 R의 분석 패키지인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빅카인즈(Bigkinds)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제하기 위해 텍스트를 전처리(pre-processing)했다. 먼저,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한 패키지인 코엔엘피(KoNLP: Korean NLP)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어절 단위로 추출하고, 단어의 품사를 태깅(tagging)하였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에 특수문자 등과 같은 불필요한 형태소가 있으면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접속사, 동사, 부사 등의 형태소별로 분류하였다. 명사 이외에 형태소를 분석에 포함한 것은 문서의 맥락적 의미를 추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5] 또한 불용어(stop words) 등 불필요한 텍스트가 포함된 데이터는 삭제하였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연결망을 분석하고 토픽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기법을 통하여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기간 중 언론에서 현저하게 언급된 주요 이슈(salient issue)들을 추출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 문서는 토픽들의 혼합이고, 토픽은 단어들을 기반으로 확률적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16] 대규모 말뭉치(corpus)로부터 복수의 잠재적 주제들을 ‘자료기반 방법(data-driven method)’으로 추출한 후, 잠재적 주제들이 군집화하는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해당 말뭉치에 속한 전체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종의 주제적 프레임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토픽모델링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5개의 해석 가능한 토픽 모형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토픽 간의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토픽모델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동시출현 관계를 기본으로 추출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텍스트에 잠재되어있는 의미구조와 맥락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17] 의미연결망 분석은 텍스트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변화나 패턴을 분석하여 경향, 추이, 트렌드 등을 읽는 것으로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18]

IV. 연구결과

1. 빈도분석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의미연결망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기에 앞서 전처리한 데이터의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30개 단어를 추출하였는데 결과는 <표1>과 같다. 이 과정에서 명사만을 추출한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명사만으로도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여타 단어(형용사, 부사 등)에 비해 뉴스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표1>에서 TF(Term Frequency)는 전체 문서 내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를 의미하고 값이 높을수록 중요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18,005건의 기사에 등장한 명사의 빈도는 ‘착용 의무(7,402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코로나19(4,729건)’, ‘대중교통(4,492건)’, ‘확진자(4,220건)’, ‘고위험군(3,063건)’, ‘의료기관(2,995건)’, ‘감염취약시설(2,440건)’, ‘방역(1,751건)’, ‘해제(1,630건)’, ‘감염(1,600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 출현 빈도 상위 30개 목록
 Table 1. Top 30 list of frequency of occurrence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
1	착용 의무	7402	16	확산세	560
2	코로나19	4729	17	상황	553
3	대중교통	4492	18	접종	497
4	확진자	4220	19	독감	423
5	고위험군	3063	20	예방	405
6	의료기관	2995	21	재유행	403
7	감염취약시설	2440	22	오미크론	397
8	방역	1751	23	실외마스크	382
9	해제	1630	24	자율	378
10	감염	1600	25	완화	377
11	질병관리청	1145	26	사회복지시설	331
12	중국발 입국자	1085	27	위중증	319
13	관리	905	28	백신	315
14	방역대책본부	689	29	개방형 약국	309
15	위중증	564	30	여행	267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 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토픽 및 그에 포함된 주제어는 <표2>와 같이 나타났다. 토픽1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토픽2는 ‘신규 확진자 집계’, 토픽3은 ‘중국발 입국자 관리’, 토픽4는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장소와 예외 장소’, 토픽5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분위기’로 구분하였다.

표 2. 뉴스기사에서 추출된 5개 토픽과 각 주제어
 Table 2. Five topics extracted from news articles and each keyword

토픽명	비중	주제어
1.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9.2%	정부, 권고, 대중교통, 방역, 안전, 확진자, 감염, 권고, 전환, 보건, 유행, 격리, 단계, 결정, 의료기관, 안정, 검토, 완화
2. 신규 확진자 집계	21.2%	유행, 감소, 기록, 발생, 집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위중증, 누적, 감염, 사망자, 연휴, 유지, 지속, 중국, 안정
3. 중국발 입국자 관리	18%	중국, 입국자, 감염, 접종, 방역, 유행, 독감, 확산세, 검사, 안전, 확진자, 관리, 환자, 인플루엔자, 백신
4.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장소와 예외 장소	16.2%	학교, 대중교통, 권고, 교육, 실외, 방역, 감염취약시설, 버스, 자율, 유지, 전환, 병원, 의료기관, 지하철, 개방형 약국, 학원

5.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분위기	15.4%	행사, 지역, 활동, 지원, 사업, 관광, 개최, 시민, 관리, 예방, 참여, 기업, 캠페인, 축제
--------------------	-------	---

3.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1) 주제어 중심성 분석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뉴스에 나타난 의미연결망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심성 값을 <표3>에 제시하였다. ‘방역’, ‘확진자’, ‘감염’, ‘유행’, ‘권고’ 등이 연결 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겐벡터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 상위를 차지하였다. 상위에 랭킹된 주제어들은 의미구조와 맥락을 구축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임을 뜻한다.

표 3. 주제어 중심성 분석
 Table 3. Key words centrality analysis

연번	단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 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방역	163.75	0.010	0.312	1272.732
2	확진자	113.48	0.009	0.248	1099.394
3	감염	84.06	0.008	0.239	495.348
4	유행	81.53	0.008	0.224	452.319
5	권고	58.65	0.008	0.196	387.176
6	중국	43.84	0.007	0.181	256.190
7	입국자	41.8	0.007	0.165	170.297
8	대중교통	36.95	0.007	0.156	137.972
9	상황	27.74	0.007	0.148	127.726
10	확산세	26.95	0.007	0.136	121.245

2) 의미연결망 구조 및 하위군집 분석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뉴스의 의미연결망 구조와 군집화한 결과를 <그림1>로 제시하였다. <그림1>에 나타난 의미연결망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크고 명암이 뚜렷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는 노드가 중앙에 존재한다. 이를 중심으로 ‘방역’, ‘신규 확진자’, ‘중국’, ‘입국자’ 등이 상호 연결 관계를 보이며, 의미구조와 맥락을 형성하고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집1>은 ‘방역’과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중국’, ‘입국자’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 <군집2>는 ‘확진자’와 관련된 ‘신규’, ‘누적’, ‘증가’, ‘발생’, ‘기록’, ‘환자’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군집3>은 ‘감염’과 관련해 ‘유행’, ‘정부’, ‘확진자’, ‘신규’, ‘방역’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군집4>는 ‘착용’과 관련한 군집으로, ‘대중교통’,

‘자율’, ‘안전’, ‘권고’, ‘전환’, ‘방역대책본부’ 등의 주제어들이 있다. <군집5>는 ‘마스크’와 관련해 ‘착용’, ‘의무’, ‘조치’, ‘실외’, 의료기관 등의 주제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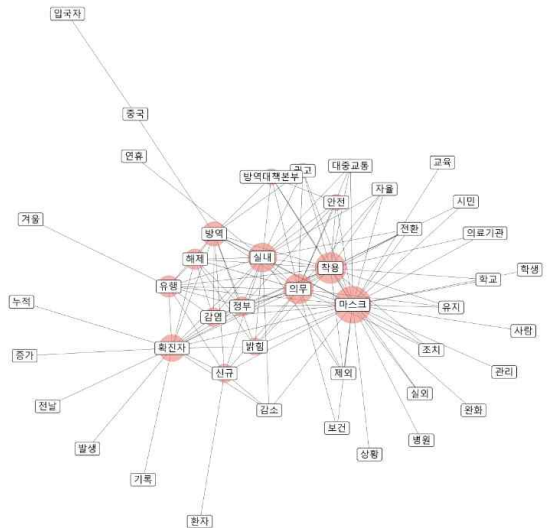


그림 1.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관련 의미연결망 분석
 Figure 1. Analysis of the semantic network related to ‘removal of mandatory wearing of masks’

<그림1>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마스크’는 여전히 ‘의무’, ‘착용’과 밀접히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해제’는 ‘방역’, ‘정부’ 등 방역당국의 지침 및 ‘감염’, ‘유행’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즉, 방역대책본부 등이 코로나19의 유행 추이, 의료대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했다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으면 위험(유행, 감염)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역당국은 과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추종하기를 기대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정책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변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코로나19 이외에도 계절형 독감,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영향 등으로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 전문가 토론회(2022. 12. 15.)」에서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으로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능력 못지않게 사회적 위험(팬데믹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째, 뉴스기사 분석 결과, ‘확진자’와 ‘방역’의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유행 현황’과 ‘독감·코로나 유행 관리’ 토픽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선언 이후에도 언론은 여전히 위험(전염병 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 유지와 관련한 키워드와 토픽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의 감소에 관한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따른 실내·버스·지하철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마스크 이외의 방역조치 해제 관련 내용이 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방역당국의 보도자료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내용과 실태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시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해제된 시점까지 의미연결망과 토픽모델링 분석 외에 주요 기사들을 개별적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유행 예측의 어려움, 지속적 재유행,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이웃 나라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혼란 등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증점 거론되기도 했다.

넷째, 현재 방역 정책 수단이 매우 한정적으로 남아 있지만,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과 같은 전문가 토론회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고, ‘친구’와 ‘이웃’,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답하지만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는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겠지만 국가의 방역 정책이 완벽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Hankook Research, “[Corona 19] situation identification, mask intention and government response evaluation”, March 2023.

- [2] J.H. Cho, and I.H. Cho, “Exploration of Online Issues about Re-Influx of MERS Virus in Korea 2018: Investigation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 Emotion Analysis,” *Th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5, pp. 1051-1060, May 2019. DOI: 10.9728/dcs.2019.20.5.1051
- [3] T.J. Kim, “COVID-19 News Analysis Using News Big Data: Focusing on Topic Modeling Analysis,” *Th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5, pp. 457-466, May 2020. DOI: 10.5392/JKCA.2020.20.05.457
- [4] S.J. Cha, “Mask Cognition Types of Korean in the COVID19 Era using the Q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7, No. 9, pp. 157-167, September 2022. DOI: 10.9708/jksoci.2022.27.09.157
- [5] M.H. Jung, and Y.H. Mo, H.S. Park, “Factors on Covid-19 Mask-wearing Behavior”,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5), 1233-1248, October 2020.
- [6] M.H. Kang, C.M. Jeong, and J.K. Na, “COVID-19 and Face Masks: East-West Cultural Differences in Wearing Face Masks in Public,”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35, No. 4, pp. 77-103, November 2021. DOI:10.21193/kjspp.2021.35.4.004
- [7] E. J. Han, J. K. Na, J.H. Bang, and S.H. Sul,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in the Midst of COVID-19,”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36, No.1, pp. 47-67, February 2022. DOI: 10.21193/kjspp.2022.36.1.003
- [8] K.K. Ko, and B. Kim, “A Critical Review of the Evaluation of the COVID-19 Response in South Korea: Issue Changes and Analysis of Empirical Evidence,” 「행정논총」, Vol. 58, No. 4, pp.1~29, December 2020. DOI: 10.24145/KJPA.58.4.1
- [9] S.H. Kang, S.Y. Guak, Altangerel Bataa, D.H. Kim, Y.D. Jung, J.Y. Shin, and K.Y. Lee, “Mask-wearing Characteristics an COVID-19 i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46, No.6, pp.750-756, December 2020. DOI: 10.5668/JEHS.2020.46.6.750
- [10] Y.R. Suh, K.S. Koh, and J.W. Lee,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media’s reports and attitudes about face mask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a study using Big Dat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l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25, No.5, pp.731–740, May 2021. DOI: 10.6109/jkiice.2021.25.5.731
- [11]T.J. Kim, “COVID-19 News Analysis Using News Big Data : Focusing on Topic Modeling Analysis,” *Th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0, No.5, pp. 57–466, May 2020. DOI: 10.5392/JKCA. 2020.20.05.457
- [12]S.J. Park, and J.S. Ha, “Analyzing the Influence of Face Masks on Fashion Product Selection Criter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6, No. 2, pp.292~309, 2022. DOI: 10.5850/JKSCT. 2022.46.2.292
- [13]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aily Recovery Discussion, 15 Dec. 2022.
- [14]P. Slovic, “Perception of Risk,” *Science*, Vol.236, pp.280–285, 1987.
- [15]J.H. Hwang, Y.J. Han, and H. W. Lim, “Research Trend Analysis on Metaverse Applications in South Korea: A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9 No.1, January 2023. DOI:10.5659/JAIK. 2023.39.1.55
- [16]S.I. Hwang, J.B. Park, and M.K. Kim, “An Analysis of Humanities Contents-related Studies’ Trends in Korea Focused on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Humanities Contents*, Vol.56, pp.123–141, March 2020. DOI:10.18658/humancon.2020.03.123
- [17] S.I. Hwang, and D.R. Hwang.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Arts Management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Vol.47, pp. 5–29, August 2018. DOI: 10.52564/JAMP.2018.47.5
- [18]S.I. Hwang, and M.K. Kim. “An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related Studies’ Trends in Korea Focused on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9, pp.1847–1855, Sep. 2019. DOI : 10.9728/dcs.2019.20.9.1847